

금호산업·타이어에 3,800억 긴급 지원

채권단, 대주주 사재출연·구조조정 동의 요구…진통 예상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밟고 있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총 3천800억원의 긴급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해 경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채권단은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 동의와 대주주의 사재 출연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실제 자금 투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호그룹 채권단은 2일 금호산업에 2천800억원을, 금호타이어에 1천

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에는 해외 원자재 구입을 위해 3천만달러 한도의 신용장을 새로 개설해주기로 했다.

금호산업 주체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금호산업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3일 회의를 열어 9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동의를 구할 방침이다. 또 풋백옵션 체권이 있는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도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주체권은행인 산업은

행도 오는 9일 회의를 통해 채권금융 기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신규자금 지원안이 통과되기 위해 채권단은 75%의 동의가 필요하며 안건이 통과되면 1주일 내 자금이 집행된다.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경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감산에 들어간 금호타이어는 원자재 구입과 상거래 채무 변제, 체불 임금 지급 등이 가능해진다.

금호타이어는 원자재 구입과 상거래 채무 변제, 체불 임금 지급 등이 가능해진다.

능해진다.

하지만 지난달 원자재 구입을 못해 곡성공장의 감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매달 원자재를 들여오는데 지난달 자금난으로 원료 구입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운송기간이 45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감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경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감산에 들어간 금호타이어는 원자재 구입과 상거래 채무 변제, 체불 임금 지급 등이 가능해진다.

안양수 산업은행 경영자

원단장은 “아직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이 개시되기 전이지만 자금 압박을 겪는 협력업체들을 위해 긴급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채권단회의에 지원안을 둘러봤다”며 “다만 자금 지원 이전에 FI들의 합의와 대주주 사재 출연, 노조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금융협력업체들이 진성어음을 등의 자금 결제를 못받고 있어 설 전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금호 오너는 신규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상당부분 (보유 자산)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고강도 구조조정안 왜 나왔다

워크아웃 조기 출업 자구책 노조 반발 실행여부 미지수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조기 출업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내놔 실행 여부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호타이어 회사 측은 지난 1일 임금·단체협약 1차 본교섭에서 ▲적자 규제 생산 중단 등 생산구조 개선 ▲해고 371명과 도급화 1천6명(고용 보장) 등 인력구조 개선

▲임금 20% 삭감과 3년간 임금 및 정기 승

호·동결 등 임금구조 개선 ▲유급일·연월차 허가 축소 ▲복리후생 축소 또는 중단 등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회사측 제시안의 골자는 경쟁사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 기능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377명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 수주가 밀려드는 등 공장 가동이 활

기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회사측은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꾹고 있다.

회사 측은 금호타이어는 수요 중심이 아닌 생산 중심으로 공장을 운영해온 터에 고질적인 과다 재고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쟁사 대비 인건비가 높은 데다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04년 이후 영업이익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원자재값 급등과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쳐 2007년 이후에는 당기 순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도 이같은 점에 공감,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동결과 인력 운영 재설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 타결까지 노조는 70일간 파업을 벌였고, 이에 따른 손실이 1천억원을 넘었다. 결국 합의 효과가 실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워크아웃 신청의 실제 이유는 대우건설 매각 실패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아니라 누적손실로 인한 차입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유동성 위기에 물린 그룹이 대우건설 매각에 나섰지만 경영권에 집착한 나머지 매각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임단협에서 노동강도가 높아짐에도 생산량 10% 증산에 합의해 회생을 감내했고, 지난해부터 신규채용 없이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했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4년 노사평화공동선언 발표 이후 5년 연속 무파업을 이어왔다.

회사 측은 워크아웃 신청의 실제 이유는 대우건설 매각 실패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아니라 누적손실로 인한 차입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유동성 위기에 물린 그룹이 대우건설 매각에 나섰지만 경영권에 집착한 나머지 매각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임단협에서 노동강도가 높아짐에도 생산량 10% 증산에 합의해 회생을 감내했고, 지난해부터 신규채용 없이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했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4년 노사평화공동선언 발표 이후 5년 연속 무파업을 이어왔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피앤비화학 온용현(오른쪽 세번째) 대표와 최종만(오른쪽 네번째) 노조위원장 등은 2일 ‘경영위기 극복 노사 한마음 결의대회’에서 올해 임금협상 권한을 회사에 모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금호피앤비화학 제공〉

금호피앤비화학 노조, 올 임금협상 회사 위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노사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다.

금호피앤비화학 노사는 2일 서울 신문로 본사에서 ‘경영위기 극복 노사 한마음 결의대회’를 열어 올해 임금협상 권한을 회사에 모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한마음으로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회사 경쟁력 향상에 매진하고, 노사간 신뢰와 상생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을 선언했다.

금호피앤비화학 노사는 지난 2004년 노사평화공동선언 발표 이후 5년 연속 무파업을 이어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어려운 시기일수록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대내외에 전扬하게 됐다”면서 “향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로 폐플, 비스페놀에이(BPA) 등 도료 생산 분야에서 세계 7위의 기업이다.

제약과 전기전자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초 소재를 함께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풍력 발전 날개용 소재인 에폭시수지를 자체 개발해 국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여수시 화芝동·월화동에 본사와 1·2공장을 두고 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휴 011-602-2532

(광주문화 신본점점, 대인동 소방서전면나면)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신가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휴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상가임대

(상무지구 세정아울렛과 백양사이)

층별	임대 3.3㎡당	권장 용도
1층 555㎡ (169평)	1,800만원	금융기관 외투 등
2층~4층	400~500만원	병원, 학원 시무실 등

층별	임대 3.3㎡당	권장 용도
9층 350㎡ (107평)	350만원	화원, 특사실 시무실 등

층별	임대 3.3㎡당	권장 용도
10층 495㎡ (150평)	350만원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분수원지구 롯데마트 앞 임 양 멀리스타워빌딩 대

※각층 약 230평(분할가능)※

○대지매매○

• 수완동 롯데마트 앞 10×10×6m 코너 상업용지 270㎡ 투자최고, 수익률 최고, 평당 225만원

○점포임대○

• 수완동 주변대로변(35m, 4번로) 3층사무실 140㎡ 평당 110만원

의원, 학원, 사무실적 합

• 수완동 삼성전자앞 외환은행건물(메디컬센터) 2층 620㎡ 평당 150만원(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적합

• 수완동 삼성전자앞 외환은행건물(메디컬센터) 3층 620㎡ 평당 120만원(부과, 비뇨기과, 안과 적합)

코리아렌드공인중개사 010-3666-8949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법원사거리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번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대표 010-7570-7525

www.assetkorea.co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현시설/월

숙소시설/월

숙박시설/상가

증정/토지

근현시설/